

碩士學位論文

파닉스 중심의 한국 유아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제언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咸美兒

2008年 8月

# 파닉스 중심의 한국 유아 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제언

指導教授 邊 明 燮

咸 美 兒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咸 美 兒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8月

The Effective English Instruction for  
Infant Learners in Korea: Opposition to 'Phonics'

Mi-ah Hahm

(Supervised by Professor Myung-Sup B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August 2008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1
II. 파닉스로 시작하는 유아 영어 교육의 문제점	3
1. 파닉스 학습법	3
2. 유아 언어 습득 본능에 위배	4
2.1 유아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	5
2.1.1 소리와 사회적 의미의 연결	5
2.1.2 Prosody의 습득	8
2.1.3 규칙과 언어 구조의 파악	10
3. 음성 언어 이해 전략에 위배	13
3.1 음성 언어 이해 기술	13
3.2 원어민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14
3.2.1 강세를 받는 모습	15
3.2.2 자음군에서 자음 자질의 축소	19
3.2.3 리듬과 울격어	21
3.3 영어 학습자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22
3.3.1 Left to Right & Bottom-up	22
3.3.2 모국어 음운 체계의 전이 현상	24
3.4 파닉스 학습자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26
4. 일반 지식 학습 능력 요구	27
4.1 발달적 실어증	27
4.2 윌리엄스 증후군	28
4.3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	30
5. 음성 언어 기능 습득 간섭	31
III. 음성 언어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 유아기	33
1. 유아들의 언어 창조 능력	33
2. 음성 언어 자료의 중요성	35
3.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언어 경험의 중요성	37
4. 우뇌의 언어	40
5. 가르칠수 없는 영어의 초분절적 요소	43

IV. 유아들의 영어 습득을 위한 제언.....	47
1. 음성 언어와 언어 습득 본능.....	47
2. Krashen의 제 2 언어 습득 이론.....	48
3.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영어 교실.....	51
V. 결 론.....	53
참고문헌.....	54
Abstract.....	59



## I. 서론

미국 이민자들이 보다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구사자가 될 가능성은 이들이 미국에 살아온 기간보다 이민을 와서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미국 이민 가정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Newport, 1999).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이른 나이에 제 2 언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의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제 2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언어 습득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유아기에 모국어 이외의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모국어와 외국어를 불문하고 유아들에게 있어 언어라는 것은 본능이고 놀이이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를 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이들은 제 2 언어를 접했을 때 새로운 욕구 표현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모국어와 다른 구조의 낯선 언어로서 제 2 언어를 경계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보다 이른 시기에 제 2 언어를 접하게 되는 유아들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유리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 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심지어 만 3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초등학생들도 이미 조기 영어 학습자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 영어 교육<sup>1)</sup>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수법이 유

아들의 인지 능력이나 언어 기능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 교육이었을 때 가능하다.

한국의 제 2 언어 교육의 초점은 단연 영어 교육이며, 한국 유아 영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유아 영어 교수 방법 중 하나가 파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 교육이다. 파닉스 학습법이 과연 처음 영어를 접하는 한국의 유아들에게 이상적인 방법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유아들의 언어 습득 본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유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언어 습득 능력을 다루고, 영어 모국어자들이 습득하게 되는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의 이해를 통해 파닉스로 시작하는 유아 영어 교육<sup>2)</sup>이 유아들의 언어 습득 본능에 역행하는 방법이며, 영어 모국어 청자들과 동일한 음성 언어 이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함을 증명하고 이상적인 유아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 1)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유아 영어 교육은 한국에서 사교육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되는 5세, 6세, 7세(만 3,4,5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다.
  - 2) 파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영어를 접하는 유아들에게 적용되는 파닉스 중심의 영어 학습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파닉스로 시작하는 유아 영어 교육의 문제점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영어 수업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도 그 내용은 이미지와 음악, 신체 놀이를 매개로 하고 있으며,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학 전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현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 영어 교수 방법이 파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 교육이라는 것이다.

### 1. 파닉스 학습법

파닉스란 영어의 철자와 소리를 이어주는 규칙이다. 예로서 'pat' 이라는 단어는 세 문자로 이루어졌으며, 이 세 문자는 각각 /p/, /æ/, /t/ 음소로 실현된다. 그러나 영어의 모든 소리들이 철자와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shirt'라는 단어는 다섯 개의 문자로 이루어졌으나, 실현되는 음소는 /ʃ/, /ɜ/, /t/ 세 개뿐이다. 'sh' 철자가 하나의 음소 /ʃ/로 실현이 된다. 이렇게 철자와 소리의 상관관계에 어떤 규칙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파닉스 규칙이다. 교사는 이런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이러한 파닉스 규칙들을 배워서 책을 읽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닉스 규칙들은 항상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소리로도 실현되기 때문에 유아들은 많은 예외 사항도 암기해야 한다.

파닉스 학습법은 미국 정부가 아이들의 literacy교육을 위해 도입한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읽기 보조 학습법이다. 높은 문맹률이란 불명예를 가지고 있던 미국은 자국의 문맹률을 낮추고자, 정부 차원에서 "No Child Left Behind 2001" 법안을 통과 시키고 파닉스를 통해 부진한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쳤다. 이미 모국어의 음성 언어



의 특징들을 습득한 어린이들에게 파닉스로 가르치는 읽기 방법은 많은 논쟁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에 유용하다고 인정받았으며(National Reading Panel Report 2001),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엄마들도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파닉스 교수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2. 유아 언어 습득 본능에 위배

유아들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언어 습득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일찍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유아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좋은 그림 동화를 한 권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림책을 읽어 주면서, 부모는 아이들이 그 내용을 전부다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냥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상 그런 반복적인 자극들이 아이들을 변하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이를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로도 유아 영어 학습자들에게 파닉스를 이용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어른들 스스로가 성인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 습득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우선 유아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행위 관찰과 함께, 유아들의 이러한 언어 발달을 유도하는 심리적 요인과 신경 자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성인과 차별화되는 유아들만의 언어 습득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유아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

<표 1>은 유아가 어떤 언어 행동을 하기 전에 유아의 내면에서 먼저 발달하는 언어 기능에 바탕을 두고 유아들의 언어 기능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유아가 어떤 언어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이전에 이런 언어 행위를 유도하는 다른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유아의 언어 행위는 타인의 언어 행위가 입력되어 유아가 이 언어 입력을 섭취하고, 음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유아들의 언어 행위 산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한국 유아 영어 교육에 전달하고 있다. Locke(1997)는 'The Theory of Neurolinguistic Development' 에서 유아시기에 발달하는 특수한 언어 처리 기능과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는 신경 언어학적 자원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Locke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발달 단계는 새로운 언어 기능의 출현을 의미 하며, 이러한 언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적인 신경 시스템, 즉 독점적인 두뇌 자원이 사용되고 있다. <표 1>의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다음 단계의 언어 발달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의 논의는 각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한 Locke의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다.

### 2.1.1 소리와 사회적 의미의 연결(mental lexicon)

생후 약 5-7개월 경에 아기들은 용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용알이를 하기 이전에는 아기들은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Locke(1997)에 의하면, 아기들이 맨 처음 습득하는 언어 기능은 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그는 'orientation to speech' 혹은 'precursors to language'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두뇌 활동들이 이후 아기가 인간의 음성 언어를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Locke, 1997).

<표 1> 유아들의 모국어 발달 4단계

Age of Onset	Developmental phases and system	Neurocognitive mechanism	Linguistic Domain
Prenatal	Vocal learning	Specialization in Social cognition	Prosody and Sound segment
5-7 months	Utterance Acquisition	Specialization in Social cognition	Stereotyped utterance
20-37 months	Analysis and Computation	Grammatical analysis mechanism	Morphology, Syntax, Phonology
3+ years	Integration and Elaboration	Social cognition and Grammatical analysis	Expanded lexicon, Automatized operation

Source: Locke, 1997, 'The Theory of Neurolinguistic Development'

소리와 소리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socially cognitive operation'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과정이 아기들이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첫 단계로서, 출생 이후의 아기들은 소리 입력 자체보다는 그러한 소리 입력을 주는 사람의 행위와 감정, 그리고 그런 입력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에 집중을 하며 이러한 소리와 사회적 의미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socially cognitive operation'의 예로서 Locke(1997)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들을 인용하고 있다(269):

- 1) take vocal turns with a partner (Ginsburg & Kilbourne, 1988; Papousek & Papousek 1989),
- (2) orient to and mimic variegated prosody (Masataka 1992),
- (3) gesture communicatively (Bates, Bretherton, Beeghly, & McNew, 1982; Morissette, Ricard, & Decarie, 1994),
- (4)

assimilate ambient phonetic pattern (Boysson-Bardies, Vihman, Roug-Hellichius, Durand, Landberg, & Arao, 1992).

옹알이를 하는 단계의 어린 아이도 엄마와 눈을 맞추고 서로 차례를 주고 받으면서 옹알이를 하고, 엄마가 말꼬리를 올리면 무언가 요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주위에서 들리는 자신의 모국어의 음성 패턴을 흉내내는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소리와 그 소리의 사회적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Locke(1997)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

These mechanisms, in turn, regulate social and referential activity that occurs in the context of linguistic displays.

여기서 'social and referential activity in the context of linguistic displays'라는 말은 의미론적인 개념이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세계(mentally projected world)에 비추어 어떤 단어를 객체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이 그 단어의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이다. 모국어 습득의 최초의 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언어의 계층구조상 상위 레벨에 있는 의미, 화용, 담화적인 언어 기능을 가장 먼저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말의 '의미'라는 것이 반드시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두뇌에 각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유아들은 가장 먼저 습득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 단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언어의 계층 구조상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발달해 가는 단순한 일방통행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유아들이 음성 언어를 통해 그것의 의미를 알아 가는 과정이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 음성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이

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와 발화 상황 안에서 이해한 음성 언어는 유아들의 머릿속에 생생한 mental lexicon을 형성할 것이고 사전에서 찾은 어휘의 의미와는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파닉스 학습에 의한 영어 학습법은 이러한 유아들의 언어 습득 성향을 무시한 채, 언어의 계층 구조상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음소에 대한 인식이 영어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언어 영역이라는 극도로 단순한 논리를 지향하고 있다. 파닉스 학습법에서도 낱말의 음가만이 아니라 그 음가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서로 아무런 사회적 관계나 연관성이 없으며,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사전에서 기계적으로 꺼내온 뜻이 직접적으로 유아들에게 주어진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파벳 D'와 이의 음가를 배운다고 하면, 'D'의 이름과 소리 /d/를 알려주고, /d/소리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제시한다. 'dog', 'duck', 'door', 'deer', 'doll'과 같은 낱말들을 이들의 사전적 뜻과 함께 제시하고 반복 연습을 한다. 음성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mental lexicon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닉스 학습을 통해 유아들은 단순한 사전을 만들 뿐이다. 영어의 알파벳과 이의 음가에 대한 인식이 영어 습득을 위한 가장 기초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오해가 유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다 더 쉽고 더 잘 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 2.1.2 Prosody의 습득

이 시기의 어린 아이들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언어 발달상 용알이 이전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습득하는 언어 영역이 prosody and sound segments라는 점이다. Sound segments라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는 음소(phoneme)를 의미하며, prosody라 함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자질(musical features)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는 stress, rhythm, intonation, pause와 같은 한국어와는 다른 풍부한 prosody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의 영어권 국가의 유아들은 엄마와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nursery rhyme을 듣고 자라는데, 이들 nursery rhyme들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prosody를 최대한 반영하는 일종의 시이며 노래로서 이 시기의 중요한 언어 입력이 되고 있다. 출생 전후로 아이들은 엄마의 말 소리로부터 자신의 모국어에 갖는 초분절적 요소인 prosody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Locke와 함께 다른 언어 학자들 역시 이 시기의 유아들은 prosodic cues를 이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속된 소리의 흐름 속에서 'linguistic unit'을 파악하는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고 하였다(Hirsh-Pasek, Kemler Nelson, Jusczyk, Cassidy, Druss, & Kennedy, 1987). 여기서 linguistic unit이라 함은 통사적 단위가 아닌 율격 단위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유아들은 문장 구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눈으로 문자를 보면서 linguistic unit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귀로 들리는 음성 언어의 초분절적 요소인 prosody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아이들이 파악하는 word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xical, grammatical word와는 다른 prosodic word라고 볼 수 있다.<sup>3)</sup>

이 점 또한 파닉스 학습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인 것이다. 파닉스는 자연스럽게 문자 위주의 영어 학습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학습법에 길들여지게 되면, 영어 습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prosody에 대한 이해와 습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뒤에서도 논의 되겠지만, 영어의 prosody라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자연스런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주위 사람과의 대화

3) lexical word와 prosodic word의 불일치는 prosody의 습득이 안 된 외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음성 언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속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음성 속에서, 수많은 nursery rhyme속에서 자라는 아이와 처음부터 알파벳과 그 음가에 대한 rule을 익히고, 문자와 씩씩하며 눈으로만 언어를 배운 아이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 질 수밖에 없다.

생후 5개월 전후로 아이들은 prosody와 sound segments를 파악하는 과정을 지나 utterance acquisition 단계로 들어선다. 이 때 접하는 많은 발화들은 어린이의 뇌 속에 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재생된다. 이렇게 나중에 유아들이 재생하는 발화를 근거로 이 시기에 저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발화들을 보면, 주로 한 단어이거나 단순 반복을 통해 기계적으로 저장되는 어구들로서 아이들이 이 그 발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이런 어구들 또한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 저절로 의미 파악이 되는 것들이다. Nelson은 비록 이들의 내 뱉는 말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the length, stress pattern, and intonation contour of these sequence are usually fairly well preserved" 라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였다(1981).

### 2.1.3 규칙과 언어 구조의 파악

유아들의 언어 발달 제1, 제2단계는 음성 언어를 경험하고 이들을 뇌에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유아들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발화들을 서로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하나의 단어로써 무한정 저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뇌가 이런 용량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서 유아들은 자신들이 저장한 언어 자료들을 가지고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이 저장해야 할 언어 자료의 수를 줄이게 된다. 즉 walk와 walked, happy 와 unhappy 같은 어휘들을 서로 별개의 언어 자료로 저장하다가, 뇌 저장 용량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서 스스로 자



신이 저장해 둔 이와 비슷한 다른 언어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연관성과 규칙성을 발견한다. 즉, walk 와 과거형 어미-ed, happy 와 부정 접두사 un-을 분리해 낼 줄 알게 되고, 이 후부터는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만을 저장하고, -ed, un- 이라는 접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저장해야 할 자료의 수를 줄여, 뇌의 한정된 저장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계산을 통해 아이들이 언어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러한 규칙들을 다른 어휘에도 적용하고, 때로는 규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다가 잘못된 어휘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자신의 모국어에 존재하는 문법을 파악하고, 문법에 맞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Locke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Whether a rapidly expanding lexicon presses grammatical mechanism into operation because of storage limitations for segmentally underspecified material . . . . The structure analysis system locates recurring elements within and across utterances and thereby learns the rules by which utterances are to be synthesized and parsed. In effect, it presents the child with the units needed for morphology, phonology, syntax, and lexicon—thereby endowing the propositionally generative child with the capacity to make infinite sentential use of finite phonemic means(273-274).

이러한 유아들의 언어 분석 능력이 얼마나 잘 발휘되는가 하는 점은 유아들의 언어 습득 초기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후천적인 언어 입력에 달려있다. 유아들의 제1, 제2 단계에서 외부에서 오는 언어적 자료들을 충분히 축적했을 때, 제3, 제4 단계에서 이 언어 자료

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일정한 규칙 즉, 문법을 구축하는 신경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Locke가 주장하듯이, 언어 발달의 과정은 각 단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 연결 고리가 깨어진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은 기대할 수 없다. 언어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규칙을 유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제1, 제2 단계의 무수한 음성 언어 자료의 경험과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언어 발달의 어느 한 단계는 다음 단계가 시작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 능력 중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기능들이 제 3, 4단계에서 발달하는 언어 기능들이지만, 제대로 된 음성 언어의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1, 제2 단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언어 기능 발달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닉스 학습법은 Locke의 설명과 반대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아이들에게 분석과 암기를 강요한다. 아무런 실험 재료나 자료가 없이 실험을 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울 수는 없다. SLA(Second Language Acquisition)를 추구하는 영어 교육계에서는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하지 말고 영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들의 자연스런 언어 발달 단계를 따라 가다 보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이도,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껏 경험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과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닉스 학습법은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언어 영역을 인위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어 영어를 재미없고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 3. 음성 언어 이해 전략에 위배

#### 3.1 음성 언어 이해 기술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언어 기술이다. Wells-Jensen은 자신의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 이해에 대한 재미있는 계산을 하였다. 그녀의 계산에 의하면, 그녀는 분당 210단어의 속도로 강의를 하며, 분당 평균 단어의 수는 1.6 음절이었다. 학생들은 분당 340 음절, 1초당 5.67 음절의 소리를 듣는 셈이었다 (Wells-Jensen, 2004). 이것을 분절음의 수로 환산하면, 1분당 935의 분절음, 1초당 15.5 분절음이 지속적으로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를 쉽없이 처리해야 한다 (Wells-Jensen, 2004). 또한 동시에 학생들은 이런 분절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의 의미를 자신의 mental lexicon에서 찾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어들의 통사론적 기능을 파악해서 알맞은 문장 구조를 만들고 마침내 한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하나의 문장 역시, 바로 이전에 의미 파악이 끝난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녀의 강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학생들이 필기를 하면서 혹은 강의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는 동시에 놀랄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자신의 모국어에 관해서는 말이다.

Voss는 인간의 음성 언어 인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acoustic component, linguistic knowledge, context 세 가지를 들었다(1984). 그 첫 번째 요소로 acoustic component는 발화에 들어 있는 모든 분절음들을 구별해내고, 강세를 받는 소리와 강세를 받지 않는 소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분절음과 초분절적 요소에 관한 정보들은 단어와 단어 경계를 파악하고 구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Wells-Jensen,

2004). 두 번째 요소인 linguistic knowledge는 문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 love my mom rather than ...'까지만 들어도 말을 듣는 사람은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여 다음에 나올 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품사로서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동사나 전치사는 올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시킴으로써 듣기 전략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요소인 context는 청자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더욱 쉽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예문에서 than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나의 엄마와 비교가 될 만한 대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than' 이후에 'mountain'이나 'book'과 같은 명사는 이미 배제가 되는 것들이다. 여기서 두 번째 요소는 나의 관심 대상인 조기 영어 학습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 요소는 모국어 음성 언어 이해에도 적용되는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어의 acoustic component의 이해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자 하며, 유아기에 이러한 영어의 음성 언어 자료에 충분히 노출되고 더불어 영어의 음성, 음운론적 특질들을 습득해야 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 3.2 원어민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는 음성 언어를 인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자 언어를 인식하는 것은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같은 글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지 전략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어휘나 문법체계, 표현에 익숙한 사람이 좀 더 의미 파악이 유리할 뿐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의 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

의 하나가 두 언어의 음운론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절들에서는 원어민들이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전략들을 'slips of ear' 자료들을 토대로 알아보고, 이런 전략들이 우리 한국어 음성 언어 인지 전략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 3.2.1 강세를 받는 모습

인간이 음성 언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우리의 오감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리를 듣는 활동이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리 언어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운론이나 형태론, 통사론 등의 연구 분야에서 "slips of tongue"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처럼, "slips of ear" 자료들이 수집되어 인간의 음성 언어 이해 작동을 푸는데 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Bond(1999)는 그녀의 'slips of ear'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영어 원어민들은 말을 듣고 이해할 때, 강세를 받는 모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원어민들이 강세를 받는 모습을 잘 못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화자가 말하고자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해서 이해한다. Pisoni(1981) 역시 강세를 받는 음절을 'island of reliability' 라고 비유하면서, 영어 원어민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듣기 전략이라고 하였다. 다음 'slips of ear' 예문들은 그러한 음성 언어 이해 전략을 잘 반영해 주는 예로서, 강세를 받는 모습만큼은 정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mple 1, 2, 3)

<Example 1> Utterance: won't bother me.

Perception: lobotomy

<Example 2> Utterance: She lived in Oakland for three years.

Perception: She lived in oatmeal for three years.

<Example 3> Utterance: I'm not really inspired though.

Perception: I'm not looking at spider though.

(Wells-Jensen, 2004)

한편,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은 모음의 자질이 바뀔 수도 있고 (Examples 4, 5), 탈락되어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Examples 7, 8), 심지어 원래 화자의 실제 발화에는 없었으나, 청자가 첨가해서 인식할 수도 있다 (Example 6). 아래의 예들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slips of ear'들이다.

<Example 4> Utterance : Grammar Workshop

Perception : Grandma workshop

<Example 5> Utterance : Attacks in the ear

Perception : a tax on the ear

<Example 6> Utterance : evolution of tense systems

Perception : evolution of intense systems

<Example 7> Utterance : My coffee cup refilled

Perception : My coffee cup fell

<Example 8> Utterance : decorator

Perception : Dec writer



<Example 9> Utterance : I teach speech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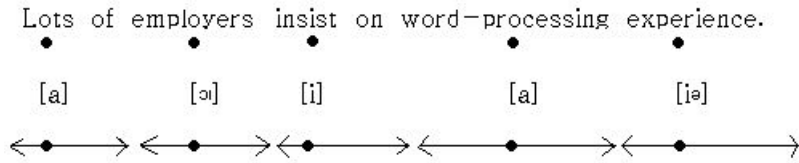
Perception : I teach speech signs

(Z. S. Bond, 1999)

즉,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은 자신의 모음 자질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실현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화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인식되기 힘들다. 발화를 인지하는 시스템에서의 비강세 모음의 위상이 강세를 받는 모음에 비해 유동적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만큼 영어 원어민들이 발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명사는 첫 음절에 그 강세를 받는다. 그러나 영어 단어들 중 일부는 첫 음절이 강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즉, 강세 중심의 듣기 전략은 영어 원어민들의 듣기 전략이 발화상의 낱말의 분절음들을 들리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left to right processing'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Cutler 와 Norris(1988) 역시 원어민들이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단순히 분절음들을 'left to right processing'에 의해 처리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Cutler and his colleagues have proposed that stressed syllables provide information for segmenting the continuous speech stream" (Bond, 1999).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 원어민들은 발화상 강세를 받는 음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의 syllable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mental lexicon에서 적당한 단어를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 "Grosjean and Gee(1987)and Cutler and Norris(1988) suggested that this stressed material might be used to initiate a lexical search" (Wells-Jensen and Myoyonung Kim, 2004). <그림 1>은 이러한 native English listener의 듣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lʌts] [əv] [ɪm] [plɔɪ] [ərs] [ɪn] [ɪnsɪst] [ən] [wɜːd] [prə] [se] [sɪŋ] [ɪks] [pɪə] [rɪəns]

Lots of employers insist on word-processing experience.

<그림 1> Native Listener's Listening Strategy

즉, 영어 원어민들은 전체 발화상의 강세 패턴을 빨리 살펴본 뒤, 강세를 포함하는 음절을 먼저 파악한다. 이후 강세를 포함하는 음절을 중심으로 전후의 분절음들을 다음 번 강세 음절이 나타날 때 까지 인지하고,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mental lexicon에서 가장 알맞은 단어로 각각의 음절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청자의 mental lexicon은 세 번째 syllable [ɪm]을 두 번째 음절인 [əv]와 결합하여 [əvɪm]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보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절인 [plɔɪ], [ərs]와 함께 묶어서 [ɪmplɔɪərs]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간의 두뇌 신경 회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영어 원어민들의 강세에 의존하는 발화 인지 전략은 자음이나 모음의 개별적인 음가보다는 초분절적 요소인 강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어의 음운 현상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가 영어 듣기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분절적인 요소를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가르침으로 영어 학습자의 두뇌에 주입한다고 해서 학습자가 이런 초분절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용하여 듣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동안 영어 음성 언어 언어에 충분히 노출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두뇌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3.2.2 자음군에서 자음 자질의 축소

영어로 된 발화를 듣고 이해 한다는 것은, 따로 따로 떨어진 소리를 함께 순서대로 모아놓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고유의 음가도 다른 소리와 함께 연결이 되고,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음가가 변질되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음절의 모음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영어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단지 비강세 모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음은 모음보다 더욱 심한 변이 현상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Example 10> Utterance : find me  
Perception : fine me

<Example 11> Utterance : in harmony with the text  
Perception : in harmony with the test

<Example 12> Utterance : Stephanie  
Perception : Tiffany (Z. S. Bond, 1999)

<Example 10>에서는 consonant cluster '[ n ]', '[ d ]'가 각각 alveolar nasal, alveolar로서 공유하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consonant '[ d ]'가 탈락되어, 마치 'fine me'처럼 들리게 된다. <Example 11>에서도 consonant cluster '[ kst ]'가 '[ st ]'로 축소되어 인식되고, <Example 12>의 '[ st ]'는 음절의 onset에 consonant cluster가 온 경우인데 '[ t ]'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과 자음의 'slip of ear' 현상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화자의 의도대로 회복해서 듣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발화시 화자에 의해 축소되고 약화되어 발음되어지는 것이 영어 음운 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영어 원어민들은 이러한 영어의 phonology를 발화와 발화의 인지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의 'slip of ear'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mple 13> Utterance : Mrs. Winner

Perception : Mrs. Winter

<Example 14> Utterance : Fine sunny weather

Perception : Fine Sunday weather

(Z. S. Bond, 1999)

<Example 13>, <Example 14>는 화자가 본래 의도했던 utterance를 회복해서 인식하기 위해 모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sunny weather'를 'sunday weather'로 인식하는 것은 'sunny'가 원래는 [nd] consonant cluster 이었으나, [n]으로 축소되어 실현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slip of ear'를 초래한 것이다. 즉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음운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많은 경우는 'slips of ear'가 되기보다는 화자가 본래 의도했던 발화들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Bond, 1999).

영어에 있어서 음성 언어는 강세를 배제하여 실현되거나 인식 될 수 없고, 반대로 문자 언어는 강세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강세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 언어 인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자보다 소리에 더 우호적인 유아기의 영어 교육에서 문자 언어를 배제한 음성 언어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 3.2.3 리듬과 율격어

강세로 인해 형성되는 또 다른 영어의 독특한 음운 현상은 rhythm과 prosodic word이다. 이 또한 영어 원어민들이 자신의 모국어 발화 내용을 듣고 이해할 때, 이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강세가 강조되는 언어를 stress-timed language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영어가 이에 속한다. stress-timed language라는 의미는 강세를 받는 음절과 다음 강세를 받는 음절 사이의 간격이 시간적으로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간격을 foot(음보)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음보들은 이처럼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isochronous foot-음보내에 몇 개의 음절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독특한 음악적인 운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운율을 rhythm이라고 한다. <그림 2>를 보자. 예시 문장의 stress pattern은 강 약 약 / 강 약 약 / 강 약 약 / 강 약 약 약 / 강 약 약이며, 제 4 foot이 4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foot내의 음절들이 가지는 time duration의 비율은 3 : 1.5 : 1.5 / 3 : 1.5 : 1.5 / 3 : 1.5 : 1.5 / 3 : 1 : 1 : 1 / 3 : 1.5 : 1.5인 rhythm을 만들게 된다.

또한 이런 stress-timed language에서 청자가 듣게 되는 발화는 문자 언어로 쓰여진 것과 다르게 된다. 비강세 음절에서 강세 음절로 바뀌면서 새로운 음보가 시작되고 이 지점에서 발화상의 pause가 생기게 되는데, 이 pause가 문자 언어상의 띄어쓰기 지점과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통사론적인 단어인 Lots, of, employers, insist, on, word processing, experience로 구분되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Lots of em-, ployers in-, sist on word, processing ex-, perience가 듣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발화 이해의 기본 단위가 되는 foot은 통사론적으로 서로 다른 품사나 심지어 단어의 일부 음절만도 포함하여 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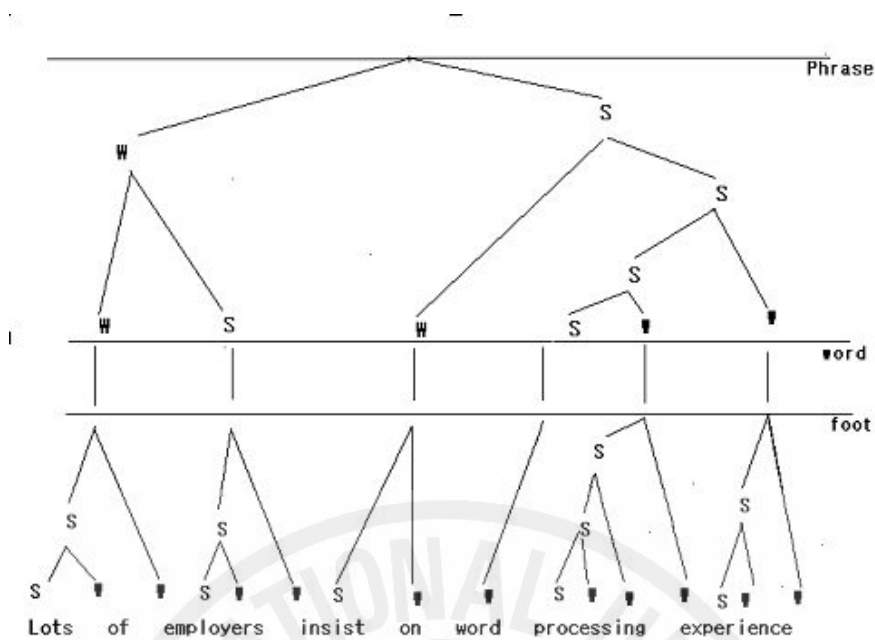


그림 2) Source: Heinz (2000)

사적인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비통사적인 음성 언어 인지의 기본 단위를 prosodic word, 율격어라고 한다. 율격어가 음성 언어 인지의 기본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독립적인 음가나 구조보다는 이를 뛰어 넘어 통합적으로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 영어 모국어 청자들의 듣고 이해하는 언어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3.3 영어 학습자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 3.3.1 Left to Right & Bottom-up

그렇다면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은 어떠한가? 모든 언어 영역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이 그것이다. 듣기에 있어서 bottom-up 방식이란 언어의 소리자료를 초분절적 요소를 포함하여, 하위 레벨에 있는 음소부터 분석을 시작으로 음절, 음보(foot), 단어, 구, 문장을 구성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상향식 정보 처리를 의

미하는 것이고, top-down 방식이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청자의 발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국어 화자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거나, 후자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외국어 습득자들은 주로 소리의 음운론적인 정보에 더욱 의존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영어 원어민들의 듣기 전략은 <그림 1>에서 보았듯이 강세 패턴을 우선 파악하고 강세를 받는 모음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분절음들을 동시에 살피며, 음보와 음보 사이의 약간의 pause에 의해 형성되는 각각의 율격어들과 발화 상황을 종합하여 통사적인 경계를 파악하고, 문법적인 단어를 비로소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축소, 탈락되거나, 자질이 변경되어 실현된 분절음들을 인식한다. 그들은 말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나무가 아닌 숲을 멀리서 조망하듯이 음성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slips of ear' 자료가 보여주듯이, 원어민들 역시, 강세를 받고 있는 음절을 제외한 다른 음소들의 인지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모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우리의 경우 영어 발화상의 분절음 하나 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의 speech를 이해할 수 없는 경직된 left to right and bottom-up 듣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음소는 한국어와 달리 강세를 받지 못했을 때는 약화되거나, 소실되거나, 변질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음소를 하나 하나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세와 강세 때문에 발생하는 영어만의 독특한 음운 현상을 듣기 전략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left to right and bottom-up 듣기 전략은 오히려 영어 발화를 이해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4)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이미 말하였다



### 3.3.2 모국어 음운체계 전이 현상

모국어의 음운체계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를 들을 때 사용하는 듣기 전략을 외국어를 듣고 이해할 때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학습자 내부에 이미 고착된 모국어의 음운체계가, 습득하고자 하는 제2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언어 기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모국어 음운 체계 전이 현상(L1 phonological transfer)이라고 한다. 문법이나 어휘는 언어마다 확연히 다를 수 있으나, 음성이란 것은 인간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조음기관이나 청각 기관, 신경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어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제2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 음성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출발점은 당연히 자신의 모국어의 음운 체계가 될 것이다. 모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용하여 제2언어에 매우 근접한 소리를 내고, 인식하려고 한다. 그 중 음성 언어의 발화 즉, 자신의 모국어에는 없는 새로운 음성 신호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적인 훈련이라고 Jenkins(2000)는 주장하고 있다 :

Habit formation plays a major role in the pronunciation of L2 sounds with muscular habits that have always operated to produce the sounds of the L1 being automatically activated in L2 production.

그러나 외국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조음 기관을 훈련시키는 것과는 다른 추상적인 과정이다. 굳이 말하자면 음성언어의 이해를 담당하는 우리의 신경기관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뇌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의 음성 언어 인식을 위한 신경 회로를 외국어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데 그대



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모국어 음운체계 전이 현상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와 영어처럼 두 언어가 상반된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모국어 음운 체계 전이 현상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sup>5)</sup> 영어의 음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강세이며, 이 강세에서 비롯되는 영어의 율격 특성을 중심으로 듣기 전략이 짜여지는데 비해, 한국어는 강세라는 초분절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율격 특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세에 의해 모음과 자음의 자질이 없어지거나 변하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CVC 음절에서 마지막 C가 자음군일 경우, 대표 자음 하나로 실현되고, 다음 음절이 onset이 없이 V로 시작될 때, 자음군에서 실현되지 못한 자음이 다음 음절의 onset으로 연음되는 현상은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강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한 강세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발화상의 pause와 문자 언어상의 띄어쓰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법적 단어와 율격어 사이의 불일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듣기 위한 전략으로, 전형적으로 left to right and top-down 전략을 사용하여 들려오는 순서대로 분절음들을 분석하여 문장을 이해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영어 발화를 듣는 전략에도 적용하려 하게 된다.

Jenkinson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율격 요소를 꼽고 있다 :

. . . the types of errors and deviations that NBESs(Non Bilingual English Speakers) make in the areas of word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these being the areas

---

5) 영어는 stress-timed language인데 반해서 한국어는 syllable-timed language인데 가장 큰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다.

suggested by the majority of phonology authorities as having the greatest implications for intelligibility(Jenkinson, 2000).

Brown(1990)은 stress-timed language인 영어에서의 rhythm, intonation, stress alternation이 발화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안내자라고 하였다. Nelson(1982)은 그의 연구에서 syllable-timed Hindi-English와 stress-timed American English간의 차이점을 관찰하였는데, 그의 결론은 비 모국어자의 영어 사용에 있어서 rhythm이 상호 의사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Cruz-Ferreira(1989: 24)는 억양을 외국어 습득의 ‘the last stronghold’ 라고 묘사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실험은, 영어 학습자들이 초분절적 요소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해 주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영어를 학습한 능숙한 영어 사용자라도 초분절적 요소들까지 자연스럽게 익혀서, 완전히 모국어 처럼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국어의 음운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굳어진 어른들의 경우는 그들의 모국어 악센트가 없는 완벽한 제2 언어의 음성을 인식하거나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Jenkins, 2000).

#### 3.4. 파닉스 학습자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

음성 언어 이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첫째, 파닉스 학습법은 left to right processing을 통해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는 유아들의 듣기 전략을 분절음들의 개별적인 음가를 발화에서 분리해 내고 이들을 들려오는 순서대로 left to right processing에 의해 처리하는 전형적인 영어 학습자의 전략으로 이끌고 있다. 둘째, 이미 언급했듯이 파닉스 학습법은 개별 음가와 그 음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단어들의 이상적 발음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연속되는 발화에서 변질되거나 축소되는 음성 자질

들을 익힐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자를 매개로 개별 단어의 소리의 생산과 읽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발화 인지의 기본 단위가 되는 비통사론적인 율격어를 인식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로운 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 유아들에게 영어를 접하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런 영어 습득자로서 영어 모국어 화자와 같은 수준의 영어 사용자를 만들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영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일반 지식 학습 능력 요구

Jackendoff(1994)는 유아들의 언어 기능의 습득은 일반 지식의 학습과는 다른 신경 자원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아들의 언어 능력은 이들의 학습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실에서도 이들에게 영어를 일반 지식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서로 다른 신경 자원을 사용하는 독립된 두뇌의 기능이라는 연구 발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 4.1. 발달적 실어증

언어학자 Myrna Gopnik은 "발달적 실어증"을 겪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적 실어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언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독 언어발달만 늦었다고 하였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고, 이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교육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일생동안 지속되며, 환경이 똑같은 쌍둥이 경우도, 한 명은 이런 장애를 겪는 데에 반해, 다른 한명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거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언어 장애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에 언어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며, 이것은 유전자에 입력되어 유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Gopnik and Crago, 1990).

#### 4.2. 윌리엄스 증후군

발달적 실어증과 반대되는 예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다.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이며 유명한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글로리아 렌호프(46)의 사례는 두뇌의 언어 영역과 일반 학습 영역이 별개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녀는 25개 국어로 된 노래 2천5백여 곡을 25개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으로 자유자재로 부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도 못하는 IQ 55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자이다. 윌리엄스 증후군에 걸리면 두뇌의 다른 기능은 떨어지지만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정상이어서 말은 여전히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억이나 판단, 추리를 할 때와 말을 할 때의 두뇌 활동이 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들의 어휘 수준은 정상적인 정신 수준을 가진 같은 또래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들은 특별한 단어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일반인들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그 어휘들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Bellugi et al., 1993). Bellugi et al.은 윌리엄스 증후군을 가진 11, 13, 16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canine, archaeologist, corne라는 세 단어를 주어진 네 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와 연결시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 과제를 쉽게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장문으로 정의하고, 예시문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Bellugi et al., 1993). 그러나 이들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는 달리 이들이 단어를 정의하는 방

법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달랐다. 즉, 그 단어의 가장 특징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다. 아래 Bellugi et al.이 제시한 예들을 보면 그들의 언어 능력과는 다른 면에서의 인지 능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Example 15> "Sad is When someone dies, someone is hurt, like when you cry."

<Example 16> "I would like to commentate it. It means that . . . like all the sports casters do . . . they tell who's doing what."

Rice et al.(1999)의 <표 3>은 윌리엄스 증후군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또 다른 언어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을 증명해 준다.

<표 3>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children with Williams syndrome (WS), and unaffected children (language matched (LM) and age matched(AM) in the use of inflectional morphemes in English (-s, -ed, BE)

	SLI	LM	AM	WS
Intelligence testing	96	109	106	60
Age (in months)	58	36%	60%	91%
-s	35%	61%	88%	83%
-ed	22%	48%	92%	85%
BE	47%	70%	96%	91%

Source: Rice et al.(1999)

윌리엄스 증후군을 가진 어린이들은 지적인 능력에서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그룹의 아이들보다 뒤쳐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인칭 단수 동사에 -s를 첨가하고, 과거형에 -ed를 첨가하는 형태론적 규칙에 따라 말을 하는 테스트에서는 인지적 능력에서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이 그룹의 아이들과 같은 정확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ellugi et al.(1993)은 윌리엄스 증후군

아이들의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발화 샘플을 수집하였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그들은 윌리엄스 증후군 아이들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조건절, 수동태, 관계절이 들어가는 복잡한 문장을 말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래 예시 문은 Bellugi et al.(1993)이 수집한 자료들이다.

<Example 17> The dog was chased by the bees.

<Example 18> Maybe you could ask your son if I could have one of your posters.

<Example 19> After it stopped hurting, I was told I could go to school again and do whatever I feel like doing.

이상에서 살펴본 발달적 실어증과 이와 상반된 윌리엄스 증후군은 일반적인 지능과 언어만을 위한 능력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3. 언어 능력과 학습능력

언어 능력은 읽기나 쓰기, 수학과 과학과 같은 일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암기하는 지능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른들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유아들 보다 우수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일반 문제 해결 능력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들의 무의식적 언어 습득 능력과 같은 우수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유아들에게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 방법으로서의 영어 교육에서 유아들이 우수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TPR)의 창시자 Asher 역시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주로 우뇌의 활동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며, 우뇌의 활동이 충분히 선행된 후에 말하거나 보다 분석적인 언어활동과 관련된 좌뇌의 활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1977). 우뇌의 역할은 운동과 감정, 음악,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 즉, 우뇌의 활동이 활발한 유아들이 원하는 우뇌적 언어 자료는 음악이고 그림이고 운동이다.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로서 영어를 익히는 유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기가 영어 교육에 긍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언어 자료가 이들의 욕구에 맞아야 한다. 파닉스 학습법과 같은 문자를 매개로 하는 교수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유아들로부터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뇌를 통한 자연스런 언어 발달을 기대하는 유아들의 두뇌 작동에 역행하는 언어 자료를 주는 것이다.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언어 습득 본능을 제치고, 성숙하지 못한 유아들의 지능 지수를 제2 언어 습득에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은 평생 이용하는 것이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언어 습득 본능은 유아기를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 5. 음성 언어 기능 습득 간섭

우리가 익혀야 하는 언어 기술들 간에도 엄격하지는 않지만 습득의 순서가 있다. 파닉스를 통해 문자 언어를 읽는 기술을 먼저 익힌 아이들은 그들의 문자 해독 능력이 오히려 영어 음성 언어의 사용 능력 발달에 부정적 간섭을 하는 역기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제 영어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를 익히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음성 언어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아무



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에게는 음성 언어 이외의 언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도 영어 문자를 먼저 배운 아이들은 반드시 이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칠판에 글자로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자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음성 언어와 달리 명확한 경계가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언어가 더 편안한 매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을 통해 음성 언어로 표현된 새로운 영어 어휘나 표현을 자신의 귀를 통해 음성 그 자체로 익히려 하기보다는, 문자로 전환한 후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서 자신들 스스로 아예 새로운 소리로 만들어서 인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귀로 들어서 음성 언어를 익히려 하고 하지 않고, 눈으로 음성 언어를 익히려 하고 하는 역설이 생기고 있다. 파닉스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음악, 이미지, 운동 기능과 같이 우뇌의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습득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인위적이고, 학습적인 능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음성 언어를 접할 때, 머릿속에 이미지 대신에 글자가 보이는 것이고, 정확하게 글자의 형태로 보이지 않으면, 듣고도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 할 수 없으니, 글로 써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유아기의 영어 교육이 파닉스를 시작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첫째 모국어 습득 과정을 통해 본 유아들의 언어 습득 본능을 통해서, 둘째 원어민과 영어 학습자의 서로 다른 음성 언어 듣기 전략을 통해서, 셋째 학습과 습득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넷째 문자 언어의 음성 언어 습득에 대한 부정적 간섭 현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다음 III장에서는 유아 영어 교육이 초점을 두어야 하는 언어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의 언어 습득 본능의 주요 요소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Ⅲ. 음성 언어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 유아기

#### 1. 유아들의 언어 창조 능력

유아들이 명확한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근거를 Hawaiian Creole 연구와 미국 가정 수화 연구와 같은 언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미국 가정 수화를 하는 어린이나, Hawaiian Pidgin만을 듣고 자란 어린이들은 모두 체계적인 언어 환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정교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언어 창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학자 Derek Bickerton의 Hawaiian Pidgin 연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경험적인 실제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Bickerton(1981)은 자신의 책 *Roots of Language* 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서두에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였다.

- 1) How did creole language originate?
- 2) How do children acquire language?
- 3) How do human languages originate?

이 세 개의 질문 중 1)번 어떻게 Hawaiian Creole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며, 어린이들의 특수한 언어 습득 능력과 더 나아가 언어 창조 능력을 보여준다. Hawaiian Creole<sup>6)</sup>은 어휘만 영

---

6) 1870년대를 시작으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한국, 필리핀, 중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몰려오게 되었고,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였으나,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의 어휘를 바탕으로 각자의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어순을 사용하는, 극도로 단순화 시킨 문법 구조를 가지는 Hawaiian Pidgin을 사용하였다.

어를 기본으로 하였을 뿐, 일정한 언어적 체계가 없던 Hawaiian Pidgin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출되었던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창조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Hawaiian Creole은 일관된 시제의 표현, 종속절의 사용, 기능어의 사용 등 Hawaiian Pidgin에는 없던 고도의 통사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Hawaiian Pidgin을 구성했던 여러 민족의 모국어나,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시제나 정관사를 사용 하는 등 그들만의 독특한 문법을 보여 주는 완벽히 새로운 언어이다. Bickerton의 주장에 의하면, 이 Hawaiian Creole의 성립에는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어린이의 특수한 언어 능력은 타고난 본능이며 그가 주장하였듯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언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language bioprogrammed)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화는 영어의 습득을 연구하는 우리의 관심인 일반적인 언어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수화는 음성 언어도, 문자 언어도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의 놀라운 언어 창조 능력을 보여 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Goldin-Meadow(1994)는 정상인 부모를 둔 10명의 청각장애 아동들을 연구했다. 이들의 부모들은 이들이 태어날 때,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식적인 미국 수화를 가르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간단한 손짓을 썼을 뿐이라고 한다. 이런 규칙이 전혀 없는 언어라고 보여 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부모의 손짓만을 가지고서도 아이들은 문법이 존재하는 자신만의 수화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체계적인 수화의 사용과는 달리 어른들은 손짓 이상의 언어적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

이들은 죽을 때 까지 Hawaiian Pidgin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비체계적이고 배울 규칙이라고는 없는 Hawaiian Pidgin을 태어나면서 듣고 자란 하와이의 어린이들은 부모들과는 다르게 일정한 문법 규칙을 가지는 새로운 언어인 Hawaiian Creole을 만들어 내었다.

## 2. 음성 언어 자료의 중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들의 무의식적인 모국어 습득과 언어 창조 능력에 대한 관찰은 유아들이 명확한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음성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음성 언어의 자질과 그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의 구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빈약한 언어 자료를 가지고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기도 하는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라운 언어 습득 능력에 대한 연구 그 어디에도 문자 언어가 매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문자 언어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 발달과 자연스럽게 병행하는 언어 발달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도구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문자 언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르침, 즉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음성 언어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때 유아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언어 발달을 작동시킬 수 있다. 즉, 유아의 두뇌가 갈구하는 언어 자료는 학습의 대상이며 도구인 되는 문자가 아니라 놀이의 대상인 소리인 것이다. 음성 언어는 Chomsky(1986)와 Bruner(1983)<sup>7)</sup>가 지적 했듯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과 그를 둘러싼 주위 언어 자극을 통해 저절로 발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청각 장애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 기술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지능 지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말을 듣고 말을 한다. 적어도 자신의 모국어는 그렇다. 읽고, 쓰는 문자 언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도 문맹자가 있는 것은, 바로 문자언어가 인간의 지

7) Chomsky는 인간의 두뇌에 인간의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이 내장된 컴퓨터 칩과 같은 존재인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 칩에 저장된 규칙들을 'Universal Grammar'라고 불렀다. 인간들은 이 Universal Grammar의 도움으로 말을 배우고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runer는 LAD와 함께 Language Acquisition Support System(LASS)으로서 주위의 환경을 언어 습득의 중요한 장치로 꼽았다.

능과 관련된 언어의 학습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인지 수준이 높지 못하고, 학습 지능이 떨어지는 유아들이 언어를 익히는 것은 지능을 사용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유아들이 언어를 인식하는 언어관은 성인들의 언어관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성인들은 익히고자 하는 제2의 언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석을 통해 언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젠가' 게임을 하듯이, 영어의 규칙과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만, 자신이 그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어와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 심사숙고를 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성인들이 이러한 언어관은 이들의 인지 수준이 너무 높고, 학습에 의해 무언가를 배우는 두뇌 작동이 그들에게는 더욱 익숙하기 때문이다. 학습 성향이 강한 성인들에게 있어서 음성 언어 영역은 새롭게 습득하기도 힘이 들지만 또한 명확히 가르쳐서 배워질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그러나 성인들도 모국어의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듣고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성인들도 모국어를 관해서라면 유아시기부터 이 음성 언어를 매개로 무의식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유아들은 언어를 처음부터 규칙이나 구조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 능력이 성인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음성 언어 자료를 이용해서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유아들에게 있어, 제2 언어인 영어 역시 문자를 매개로 한 가르침 보다는 소리를 이용한 풍부한 자료 제공이 더욱 중요하겠다.

영어 원어민의 음성 언어 이해 전략이 이들이 모국어인 영어의 음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기술이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말을 듣고 이해하는 기술은 초시간적인 기술로서,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습득된 언어 기술과 학습된 언어 기술간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에게 새로운 언



어를 익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습득 과정을 통해 언어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성인들과는 다른 언어 습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신경 언어학자 Eric Lenneberg(1967)는 이러한 어른들의 학습 능력을 초월하는 유아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언어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의 혜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언어만을 위한 특수한 작용이 활발히 가동을 하는 시기는 2세 부터 사춘기까지이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특수한 언어 발달 작용이 서서히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에 언어를 익혀야 진정한 원어민 같은 언어 구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 가설과 이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들의 뇌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쉽게 언어를 습득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영어를 익히는 한국의 유아들이 어떤 종류의 언어적 경험을 하는 것이 결정적 시기를 잘 이용하는 방법인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언어 경험의 중요성

Bruner(1983) 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언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8)</sup> Begley는 아기들의 두뇌를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비유하고 있다.

Begley(1996) refers to the brain as a jumble of neurons that are waiting to be woven into the intricate tapestry of the mind. She further describes the neruons of the newborn's mind as unprogrammed circuits of almost

---

8) LASS(Language Acquisition Support System)으로서 주위 언어 환경은 유아들이 언어 발달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자극에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우선 배운다고 주장하였다.



infinite potential, comparable to the pentium chips found in a computer before the factory has preloaded the software (*News in Science*, 2002).

즉,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이 혼자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언어 자극의 질과 양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소유할 언어 기능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다. 유아 시기의 언어 경험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유아들은 주위에서 주어지는 언어 자극과 언어 자극이 주어지는 상황,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들의 행동들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경험들을 재료로 자신들이 사용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신의 두뇌에 설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어떤 언어적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 습득 장치에 설치할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어증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의 뇌를 그들의 사후에 해부학적으로 검사하여 인간의 언어 기능과 뇌와의 관계를 밝혔던 과거의 방법과 달리, 현재의 의학은 PET(Position Emission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나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촬영하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뇌와 언어 기능 사이의 많은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언어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뇌 활성화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기의 언어적 경험들이 언어 발달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을 하며 이 시기가 언어 기능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이유를 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neuron)들이 그냥 서로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 신체의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 결정되지 않은 뇌의 신경 세포들은 무수히 많은

근육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눈을 많이 사용한다면, 더 많은 신경 세포들이 눈 근육들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망을 형성할 것이고, 청각적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청각 신경 세포로 더 많은 뇌의 자원이 할당되고 이들 사이에 연결망이 생길 것이다.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된 신경 세포들끼리의 신경 연결망을 synapse라고 하는데 이런 synapse를 형성 하지 못 한다면, 그러한 신체의 기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유아 시기의 경험은 두뇌의 어떤 신경 자원이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담당할 두뇌 회로가 구성되어 앞으로 왕성하게 기능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If these neurons are used they become integrated into the circuitry of the brain by connecting to other neurons; if they are not used, they may die” (Begley, 1996: 65).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는 인간의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그 성장의 90%가 만 8세 이전에 모두 이루어진다(Rutter et al., 1993)고 하니, 유아기를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아이가 이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 해서 언어 정보 처리를 위한 신경망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언어 처리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노력과 시간과 학습 능력을 투자하여도 걸맞는 신경망을 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아기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모국어의 prosody를 파악하고, 출생 이후에는 모국어의 음성 언어들과 이 음성 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의 생산 단계 이전에 그들이 모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음성 언어들을 수집하면서, 음성 언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유아 영어 학습자들에게 음성 언어 자극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주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인간의 언어 기능은 위에서 설명했던 단 하나의 신경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 자료를 받아들이는 신경망과 그 신호를 다른 신경망에 전달하는 신경-축색돌기, axon이라고 부름-받아들이는 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신경망 등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신경망들이 다시 연결이 되어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신경 회로를 형성하고, 이 회로를 통해 복잡한 언어 자료는 비로소 처리된다. 그런데 이런 언어 자료의 신호를 전달하는 축색돌기는 자주 사용할수록 myelin이라는 물질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렇게 축색돌기가 myelin에 둘러쌓이게 되면 - 이것을 myelinated, 또는 절연 되었다고 한다. - 그 신호를 100배 이상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Markezich). Markezich는 이 축색돌기의 절연화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비롯한 두뇌 발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절연이 잘된 축색돌기가 많을수록 인간의 정보 처리 속도가 놀랄만큼 향상되기 때문이다. 신경 언어학적으로 유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신경의 절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유아 영어 학습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신경 회로가 절연화되는가 하는 점은 아이들이 어떤 자극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는지에 달려 있다. 어린 영어 습득자를 위해, 규칙의 암기와 적용 기술을 반복하게 하여 이런 기능을 하는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지, 아니면 모국어를 배우는 유아기의 어린이들 처럼, 끊임없는 청각적 언어 자극을 주어 그 언어의 음성 언어를 처리하는 신경 회로를 형성하고 그 회로를 절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저울질 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쉬운 과제가 된 듯 하다.

#### 4. 우뇌의 언어

어른들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로 좌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

려져 있다.<sup>9)</sup> 지금까지도 성인의 언어 처리 영역이 모든 인류가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과 같은 방식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Locke는 제 1, 제 2 단계에 해당하는 음성 언어의 수집 및 사회적 의미 습득 단계에서 아기들이 사용하는 신경 자원은 두뇌의 오른 쪽 반구에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Etcoff(1989)와 Hauser(1993)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런 기능은 고릴라와 같은 영장류의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동물들 역시 그들의 오른 쪽 뇌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브로카와 베르니케의 연구 이후 인간의 언어 중추는 좌뇌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유아들의 언어 발달은 좌뇌 활성화부터 시작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Locke(1997)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이들 성인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모국어 발달 4단계를 모두 거쳐, 오래 동안 분석과 통합의 언어 처리 작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결과이다. 이로서 음성 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신경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는 우뇌가 활성화되는 유아기로 이 시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시간인 반면 좌뇌의 언어 기능 신경망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 역시 현재 성인이 된 자신이 늘 사용하는 분석과 통합 작동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생각된다.

UCLA 대학의 신경학자 Thompson(2003)은 유아의 언어는 우뇌의 언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표를 하였다. 그는 아이들은 언어 data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과는 다른 두뇌 영역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혹은 운전할 때, “오른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인다,” 이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운전대를 왼 쪽으로 30도 돌린 다음, 가속 페달을 밟고. . . ,” 등등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은 이런 동작들은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9) 브로카와 베르니케의 실어증 연구 이후, 인간의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유아 영어 교육을 논함에 있어, 이 두 신경 의사의 실어증 환자는 모두 성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처리가 되도록 우리의 뇌가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런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Thompson의 연구에서는 'deep motor area' 라고 지칭하였고,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분이 바로 'deep motor area' 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 시기에 습득한 언어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건 반사적 운동기능 같은 것이다. Thompson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모국어 이외의 새로운 언어는 제 2의 천성('second nature')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에 익힌 정보나 기술은 뇌의 'motor area'에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른이 된 이후에 학습한 새로운 언어 역시 좌뇌에서 처리되고 학습에 의해 획득된 일종의 지식처럼 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Thompson의 주장대로 결정적 시기 이후에 학습한 언어는 반드시 모국어를 통한 번역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결정적 시기에 습득되는 영어는 이러한 motor effect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언어 기술은 규칙을 암기하고 적용하고, 문자를 읽는 능력이 아닌, 음성 언어의 자연스런 노출과 이를 통한 무의식적인 저장과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Locke(1997)는 모국어 발달 2 단계에서 유아들이 습득하는 발화들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어구들로서('formulaic phrases') 이 어구들은 물론 일정한 규칙이 있는 문법적인 표현들이지만, 유아들이 이런 문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어구들을 자신의 뇌 속에 저장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Thompson의 설명처럼 마치 운동 기능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저장되고, 조건 반사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운동 기능과 감성, 이미지, 사회성 등을 주로 관장하는 우뇌의 역할이 유아의 초기 언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cke(1997)는 Van Lancker(1987, 1990)를 인용하면서, 주로 좌뇌를 이용하여 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어른들도 속어



(idiom)와 같은 어구들을 이해하고, 저장하는 데는 우뇌가 보다 더 활발히 작동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장해 온 음성 언어 자료로부터 규칙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도 음성 언어에 더욱 활성화되는 우뇌를 주로 이용하여 언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좌뇌의 이용 경향이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지만, 얼마든지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습득 과정으로 영어 학습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모국어 습득 단계상 음성 언어 습득의 과정을 지나 제3, 제4 단계에 있을지라도, 아직 기회의 창<sup>10)</sup>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므로, 영어를 배우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뇌 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Thompson은 유아들이 어른과는 달리 우뇌 지향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사항에 주목하여 유아들에게 외국어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유아들의 이 언어를 습득하는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

Thompson says simply teaching young children the sounds and accents of other languages at an earlier age may be valuable, even if they are not getting full instruction in the language. Learning those sounds later in life, from neurological perspective, can be more difficult(Thompson, 2003).

## 5. 가르칠 수 없는 영어의 초분절적 요소들

이러한 우뇌가 활발히 작동하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음성 언어를 매개로 모국어 발달과 동일한 과정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가 갖는 서로

---

10) 'Window of Opportunity'는 'Critical Period'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음운론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어를 비롯한 율격 요소가 강한 언어들은 초분절적 요소가 음성 언어의 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초분절적 요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어 원어민이 영어의 초분절적 음운 요소들에 대한 음운론적 지식을 이용하여 발화 내용을 이해하는 전략을 사용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어민들이 그런 지식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Jenkinson(2000)의 아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기 때부터 모국어 소리 언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자동적으로 습득한 언어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학이나 과학 공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아니다 :

The importance of correct word stress placement for L1 English receivers is borne out by recent research(see Kenworthy 1987; Brown 1990; Dalton and Seidlhofer 1994b), which suggests that these speakers from childhood onwards identify words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eir stress patterns, and are therefore thrown badly off course in interpreting messages with misplaced stress.(Jenkinson, 2000)

또한 Jenkinson은 Daniel을 인용하면서, 이런 율격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실제로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전략으로서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

Daniel goes on to argue that the first and alas, often neglected priority should be to supply learners of English with 10 general and powerful stress rules, . . . None that I am aware of, though, provides '10 powerful stress

rule'. This is probably because many of the rules have multiple exceptions and/or are far too complex for mental storage by students and teachers alike" (Jenskinson, 2000).

강제와 같은 초분절적 요소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영어 학습자가 완전히 자신의 언어 능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음운론적 규칙들을 학습했어도, 막상 영어 발화를 듣게 되었을 때 이런 규칙들을 의식적으로 하나 하나 적용하면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듣기 작용의 복잡성과 초시간성을 무시했을 때나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규칙들은 지식으로 남을 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발화 이해를 위한 신경 자원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다.

초분절적 요소들은 영어의 음향적 요소들이다. <표 1>에서 우리는 유아들이 출생 전부터, 자신의 모국어의 소리 언어 자료를 충실히 습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모국어의 음소와 같은 분절음뿐만 아니라, 초분절적 요소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뱃 속에서, 출생 후 주위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터득하고 있다. 즉,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의 소리에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두뇌에 이러한 초분절적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경망을 형성하고, 반복적인 영어 소리에의 노출은 이러한 신경망들을 감싸는 myelin을 더욱 두껍게 하여 분절음뿐 만 아니라, 영어의 초분절적 요소들도 동시에 신속하고 무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는, 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학습하기 힘든, 그러나 듣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초분절적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경 회로를 발달시키고 있다.

언어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넘겨버린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 음성 언어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몇몇 실험이 있다. Ioup and Tansomboon(1987)는 Thai어를 배우는 어른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Thai어는 중국어와 함께 그 음운론적 특징이 tone인 언어이다. 이 실험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Thai어의 tone을 가장 먼저 습득하였고, 어른들은 tone을 가장 나중에 학습하였다고 했다. 이 실험은 Thai어의 독특한 초분절적인 특징인 tone은 우뇌 영역에서 습득되어야 하는데, 어른들은 Thai어의 모든 특질들을 분석적인 좌뇌의 기능으로 학습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장 나중에 tone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는 억양 -pitch, intonation- 역시 평균 생후 26주에 우뇌로 처리되는 phonologic data이다 (Jenskinson, 2000).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어른들이 그 언어의 독특한 pitch를 익히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Jenskinson, 2000).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다른 초분절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영어를 익히는 한국의 유아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풍부한 음성 언어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초분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음성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신경 회로를 두뇌에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IV. 유아들의 영어 습득을 위한 제언

유아들의 영어 교육의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아 영어 교육을 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기대하며, 파닉스 규칙들을 가르치고 영문을 읽도록 권하는 것은, 아직 학습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공부해서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의 목표는 그들의 영어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야 한다. 유아들의 영어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지 능력을 고려할 때, 영어를 학습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의 영어 교육이 학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 언어가 교육의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수한 언어 습득의 능력을 백분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여 모국어와 같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언어 발달 과정을 밟게 해야 한다.

##### 1. 음성 언어와 언어 습득 본능

유아들의 영어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유아들의 특수한 언어 습득 본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지능 지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국어의 음성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적어도 음성 언어의 영역은, 적절한 음성 언어 환경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본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 즉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말을 하는 음성 언어의 영역은 아이들만의 특수한 언어 습득 본능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유아들의 영어 교육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EFL

상황에서는 자연스런 음성 언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족한 음성 언어 환경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읽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반쪽짜리 교수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롭지 못한 언어 환경 속에서도 미국 가정 수화와 Hawaiian Creole을 창조해 낸 아이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유아들의 언어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표현해 내는 것 이상의 언어 기능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두뇌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우리의 영어 음성 언어 환경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영어를 익히는 과정이 그들의 두뇌 발달에 맞도록 음성 언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런 언어 발달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자들의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보다 풍부한 음성 언어 환경을 교육의 현장에서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2. Krashen의 제 2 언어 습득 이론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과 제 2언어 교육자들이 다양한 제 2언어 교수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아들의 이러한 특수한 언어 습득 본능에 주목한 교수법은 Krashen의 '제 2 언어 습득' 접근법이라고 보여 진다. Krashen은 어린이들은 제 2 언어 역시, 그들이 모국어를 익혔던 것과 같은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주장한다(1985). 즉 새로운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도 학습 능력보다는 인간의 언어 습득 본능을 다시 끌어 올려 이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인 것이다. Krashen의 SLA이론은 'Silent Period'<sup>11)</sup>, 'Comprehensible Input'<sup>12)</sup> 과 'Low Affective Filter'<sup>13)</sup>

11) Krashen은 유아들이 제2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에는 침묵하고 제2 언어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이 기간을 '침묵의 기간(Silent Period)'이라고 하였다.

12) 'comprehensible input'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적 자극에 충분히 노출 되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input의 수준은 언어 습득자의 현재 능력을 약간 상회하는



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유아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모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런 '침묵의 시간'이 제 2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함을 Krashen(1985)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True' second-language production may not emerge for several months; a silent period of six months duration is not unusual.

Locke(1997)의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모국어를 배우는 '침묵의 기간' 동안 유아들은 아무런 언어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하게 될 모국어의 초분절적 요소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음성 언어를 통해 언어와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습득 과정을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음성 언어의 충실한 청자로서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 2 언어 생산을 강요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언어 자극들이 의미있는 자극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Krashen의 SLA 철학을 추구하는 언어학자들은 언어 습득 초기에는 음성 언어의 듣기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language skills들은 음성 언어의 의미 이해 과정을 충분히 이행한 이후에 습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충분한 듣기 과정이 결여된 말하기 연습조차 어린이들이 제 2언어를 효율적으로 익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

'i+ 1'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3) Krashen이 사용한 'filter'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 내부에 있는 일종의 언어 여과 시스템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ffective filter'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 stress가 심한 상황에서는 affective filter의 구멍이 좁아져서, 들어오는 언어 입력을 모두 걸러내 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학습자의 내부로 섭취되는 언어 입력은 별로 없게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affective filter의 구멍이 커져서 들어오는 언어 입력이 습득자의 내부로 들어와 의미 있는 언어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후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준다고 생각하였다. Brown(1988)은 자신의 ‘Listening Approach’에서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제 2 언어를 배울 때, 지나치게 빨리 목표 언어로 말을 하도록 요구받는데,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수 방법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외국어에 자신의 모국어 accent를 섞게 하고, 평생 이 모국어 accent가 붙은 외국어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Potovsky(1974)는 18-24세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새로운 언어 습득의 초기에 목표 언어의 발화를 듣고 그 발화의 의미를 발견해 내기 전까지 말하기 연습을 하지 않은 그룹의 목표 언어 능숙도가 목표 언어로 언어 학습의 초기부터 말하기를 강요 받은 그룹보다 더욱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David Long은 매우 긴 silent period를 이용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 -ALG(Automatic Language Growth)-을 운영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찍부터 목표 언어로 말을 하도록 요구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 :

All of the evidence we have gathered shows that those students who remain silent, refusing the temptation 'to try to speak', excel; whereas those students who 'try to speak' set limits on their ability to both learn and to use the language. We have never seen a single exception to this rule! Much of the problem here is that we always want to gauge our progress by equating it with speaking ability. Speaking is the one of the last parts that emerge in language acquisition. At our school, we recommend a silent period between 600 to 800 hours of instruction" (Long, David, 2003).

우리의 현실이 하루에 한 시간씩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할 때,

Long의 방법은 2년에서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 가능한 수준의 지속적인 언어적 입력을 제공해 주기만 하고, 이들에게서 목표어로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된다. 이들의 실험과 연구는 어른, 어린이의 구분을 떠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한 음성 언어의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목표 언어로 말을 할 것을 강요받는다면, 이들이 그 목표 언어로 말을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자료는 자신의 모국어 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제 2언어에는 자신의 모국어 accent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 accent는 교정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 3.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영어 교실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한다고 해서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여 무조건 들려주는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authentic English를 들려주기만 해도 어린이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언어 습득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들려오는 음성 언어를 모두 소화하고, 이 언어 속에 숨어있는 각종 문법 규칙들마저 분석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유아들에게 영어권 국가에서 생산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만을 골라 매일 TV를 틀어 주거나, 원어민이 읽어주는 오디오 북을 사다 주거나, 어릴 때부터 nursery rhyme을 들려주거나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진정한 듣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매체들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아이들로부터 반응을 구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몸짓이나, 모국어, 혹은 아주 간단한 단어의 반응은 필요하고, 이 반응의 과정은 아이들이 그러한 소리를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언어는 기계와의 대화가 아니고, 일방통행도 아니므로, 아이들의 옆에는 그들의 제 2언

어 발달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모나, 형제가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파트너였으면 더할 나위 없을 테지만,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언어적 의미가 있는 상황을 만들고,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선생님의 몸짓, 그리고 주위에 널려있는 각종 물건들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언어적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목표 언어로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모국어로든지 몸짓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 VI. 결 론

파닉스로 시작으로 하는 문자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의 시작 단계에서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교수법이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조차 파닉스를 통한 읽기 교수법이 진정한 reading 교육인가 하는 데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다. Reading 교육이 글을 읽는 기계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글을 즐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미국 내에서의 우려가 한국의 유아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파닉스를 통해 의미도 모르면서 영어책을 읽어내는 많은 유아들이 생겨났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된다. 외국어 교수법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제2 언어 ‘습득’과는 다른 방향인 ‘공부’와 ‘학습’의 길로 일찍부터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파닉스로 시작하는 유아 영어 교육이 효과적일 수 없는 이유이다. 영어를 처음 학습하는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지, 결국 우리 세대가 영어를 공부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파닉스를 시작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조기 영어 교육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초등학생이 된 뒤, 정체성과 인지 능력이 향상된 이후에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유아들이 영어를 보다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유아 영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물이 차서 넘칠 때까지, 물이 끓기 전까지는 걸으로 아무런 변화를 알 수 없듯이 유아들의 영어 잠재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이들이 자연스런 언어적 output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들을 위한 영어 교육은 성인들의 학습 과정과는 달라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들이 모국어를 익히는 언어 습득 본능을 영어 습득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sher, James.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Catos, CA: Sky Oaks Productions.
- Bates, E., I. Bretherton, M. Beeghly, & S. McNew. (1982). Social bases of language development: A reassessment. In H. W. Reese, & L. P. Lipsitt(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ademic Press. 16.
- Begley, S. (1996). Your Child's Brain. *Newsweek*. February 19.
- Bellugi, U., Paul P. Want, & Terry L. Jernigan. (1993). Williams Syndrome: An Unusual Neuropsychological Profile. In S. Broman and J. Grafman(Eds.), *Atypical Cognitive Deficits in Developmental Disorders: Implications for Brain Function*. Hillsdale, NJ: Erlbaun,
- Bickerton, D. (1981). *Roots of Language*. Karoma Publishers.
- Bond, Z. S. (1999). *Slips of the Ear: Errors in the Perception of Casual Convers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oysson-Bardies, B. de, M. M. Vihman, L. Rough-Hellichius, C. Durand, I. Landberg, & F. Arao. (1992). Material evidence of infant selection from the target language: A cross-linguistic phonetic study. In C. Ferguson, L. Menn & C. Stoel-Gammon(Eds.), *Phonological Development: Models, research, implication*. Parkton, MD: York Press
- Brown, G. (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2nd edn. London: Longman.
- Brown, J. Marvin. (1988). *The Listening Approach: Methods and Materials for Applying Krashen's Input Hypothesis*.

- New York, NY: Longman, Inc.
- Bruner, J. (1983). *Child's Talk: Learning to Use Language*. New York: Norton.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ruz-Ferreira, M. (1989). A test for non-native comprehension of intonation in English. *IRAL*, 27/1: 23-39.
- Cutler, A., & D. G. Norris. (1988). The role of strong syllables in segmentation for lexical access. *Cognition*, 26, 269-286.
- Etcoff, N. L. (1989). Asymmetries in recognition of emotion. In F. Boller & J. Grafman (Eds.), *Handbook of Neuropsychology*. Amsterdam: Elsevier. 3.
- Ginsburg, G. P., & B. K. Kilbourne. (1988). Emergence of vocal alternation in mother-infant interchange.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221-235.
- Goldin-Meadow, Susan, & Carolyn Mylander. (1990). Beyond the input Given: The Children's role in the Acquisition of language. *Language*, 66, 325-355.
- Grosjean, F., & J. Gee. (1987). Prosodic structure and spoken word recognition. *Cognition*, 25, 135-155.
- Hauser, M. D. (1993). Right hemisphere dominance for the production of facial expression in monkey. *Science*, 26, 475-477.
- Hirsh-Paek, K., D. G. Kelmer Nelson, P. W. Jusczyk, K. W. Cassidy, B. Druss, & L. Kennedy. (1987). Clauses are perceptual unit for young children. *Cognition*, 26, 269-289.
- Giegerich, Heinz J. (2003). *English Phon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pnik, M., & M. B. Crago. (1990). Familial Aggregation of a Development Language Disorder. *Cognition*, **39**, 1–50.
- Ioup, G., & A. Tansomboon. (1987). The acquisition of Tone: a Maturational Perspective. *Texas Linguistic Forum*, **28**, 1–23.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lmer Nelson, D. G. & P. W. Jusczy. (1995). The head–turn preference procedure for testing auditory percep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 111–116.
- Krashen Stephen,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 Lieberman, Mark. L1 Acquisiton Stages. <http://www.ling.upenn.edu>.
- Lock, J. L. (1997). The Theory of Neurolinguistic Development. *Brain and Language*, **58**, 265–326.
- Long, David. (2003). Just Let Me Try To Say It! ALG World. <http://www.algworld.com>.
- Markezich, Amy. Learning Windows and the Child Brain. <http://www.superkids.com>.
- Masataka, N. (1992). Pitch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aternal speech to infants.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213–223.
- Morissette, P., M. Ricard, T. G. Decarie. (1994). *Development of Preverbal and Verbal Reference*. Poster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Paris.
- National Reading Panel Report 2001. <http://www.nationalreadingpanel.org>.
- Nelson, C. L. (1982). Intelligibility and non–native varieties

- of English. In B. B. Kachru (Eds.).
- Nelson, K. (1981).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70–187.
- Newport, E. (1999). Maturation Constraints on Language Learning. *Cognitive Science*, **14**, 11–28.
- Papousek, M., & H. Papousek. (1989). Forms and functions of vocal matching in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precanonical infants. *First Language*, **9**, 137–158.
- Pisoni, D. B. (1981). Some current theoretical issues in speech perception. *Cognition*, **10**, 249–259.
- Potovsky, Valerian. (1974). Effect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 229–239.
- Jackendoff, R. (1994). *Patterns in the Mind: Language and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Rice, M., C. Mervis, B. Klein, & K. Rice. (1999). Children with Williams Syndrome do not show an EOI stage. Paper presented at 24th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November 1999.
- Rutter, Michael & Marjorie Rutter. (1993). *Developing Minds: Challenge and Continuity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Harper Collins.
- Thompson, Paul. (2003). The Osgood File. New York: CBS–Radio, 29 July.
- Van Lancker, D. (1987). Nonpropositional speech: neuro-linguistic studies. In A. Ellis (Ed.), *Progress in the Psychology of Language*, **3**, Hillsdale, NJ: Erlbaum.
- Van Lancker, D. (1990). The neurology of proverbs.

*Behavioural Neurology*, 3, 169–187.

Voss, B. (1984). *Slips of the Ear: Investigations into the Speech Perception Behaviour of German Speakers of English*. Tübingen: Narr.

Wells–Jensen, S., & Myoyung K. (2004). Teaching Listening : A psycholinguistic approach. *Teaching English to Korean*. Seoul: Hollym.



## Abstract

### The Effective English Instruction for Infant Learners in Korea: Opposition to 'Phonics'

Mi-ah Hah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Myung-Sup Byun

Many Korean parents try to expose their children to English as early as they can,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is the head-start for their children to be proficient in English. However, they tend not to consider the way to teach English to the early childhood students. Most of them start to learn English with 'phonics' instruction regardless of their ages. This paper claims that the phonics instruction is not desirable and even harmful for the Korean infants who try to acquire native like English language skills and suggests the alternative to the phonics instruction.

Phonics instruction is the method developed in the USA to teach illiterate students how to read letters and words. It couldn't be compatible with the Korean young students, especially with Korean infants. Young children have superior capability of language learning to the grown-ups.

They naturally develop their language skills, such as listening, comprehending, speaking from the ambient linguistic inputs around them without any particular teaching. They even have an ability to create a new language from ungrammatical and deficient language data. Young children could be regarded as the beings to pursue a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It is also true to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so some linguists assert that the children in this age are in critically sensitive period for language development.

The point in this paper is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the young children develop without any hard efforts is related to the domain of spoken language not to the written language which phonics instruction lay on focus. Young children are neurologically well ready to receive sound language data rather than written ones. Cognitive linguistics answer this phenomenon saying that young children process language data in a different way from adults, or their language is processed in right brain.

Korean young English learners also should train their ears to English phonology system and build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y which is unlearnable later in life time after their infancy passes by. The understanding of how young children develop their first language competence and how their brain work to acquire a language will help teachers manage their classes in order to weigh on acquiring than teaching or studying a language.

## 감사의 글

멀게 만 보이던 과정이 끝나고, 할 수 없을 것 같던 논문도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돌봐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학업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격려해 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쉽게 포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에서 계시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던 두 분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학교와 일 때문에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는데도 불평없이 지켜봐 준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지적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변명섭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경환 교수님과 이기석 교수님, 제게 좋은 자극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만에 다시 다녔던 2년 반 동안의 학교생활은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과 경험과 지식을 선물하였습니다. 제주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동료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그 분들이 준 도움 영원히 잊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8

함미아



